

'마초의 나라'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좌파 집권당 세인바움 후보, 대선 출구조사에서 여유있게 앞서 2000년 환경부 장관 '정치권 첫 발'...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

'남성 우월주의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에서 20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

한반도(22만km²) 9배 가량 면적(197만km²)에 1억 3000만명이 살고 있는 멕시코에서 정치권 '유리천장'이 처음으로 깨졌다.

2일(현지시간) 대선 직후 진행된 출구조사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 소속 클라우디아 세인바움(61·사진) 후보가 우파 중심 야당 연합 소치틀 갈베스(61)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다고 엘피난시세로와 에네마스(N+) 등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엔콜(Enkoll)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세인바움 후보가 약 58%의 득표율로 29%에 그친 갈베스 후보를 크게 앞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출구조사(파라메트리아)에서는 유효표 기준 세인바움 후보가 56%를 득표해, 30%의 갈베스 후보에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세인바움은 가부장적 '마초 문화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게 됐다.

엘우니베르살을 비롯한 현지 매체는 미국 보다 멕시코가 더 빨리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이번 대선이 역사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멕시코에서 이번 대선은 현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 '승부의 추가 일찍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여당 지지세 결집이 확인됐다.

여당인 모레나 창당 멤버인 세인바움 후보는 출마 전까지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2018~2023년)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이다.

리투아니아-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멕시코국립자치대(UNAM·우남)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1995년 우남 에너지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첫 여성이기도 하다.

에너지 산업 및 기후 분야 전공인 세인바움 후보는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그를 장관에 임명한 건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70) 현 대통령이다.

세인바움 후보는 2006년까지 시장관을 지내며 이름을 알린 데 이어 201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모레나를 창당할 때도 함께했다. 이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에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그는 온건한 이민 정책 추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 공기업 강화 등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정부 정책을 대부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행사 '푸틴은 없다'

프랑스, 미국·우크라이나·영국 등 25개국 정상 초청

오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다.

2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엔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리시 수낀 영국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25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커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노르망디를 방문할 예정이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첫 해외 방문이다.

벨기에,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왕실 대표들도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을 고려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청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각국 원수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1만2000명을 대거 배치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국빈 방문 형식으로 프랑스를 찾는다.

그는 7일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가장 높은 고지였던 프랑테 뒤 오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해 연설하고, 8일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6일 기념식을 치른다. 5년 주기로 상륙작전에 참여한 국가 정상도 행사에 초대한다.

올해가 8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참전용사들이 참석하는 마지막 기념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선 약 150명의 퇴역군인이 참석한다. 이중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현장에 있었던 이는 약 20여명으로, 최연소자는 96세다.

캐나다에선 노르망디 잠전자 3~4명을 포함, 15명의 참전용사가 참여한다. 이들의 연령은 98~104세에 이른다.

영국에서도 2차대전 참전용사 40여명이 노르망디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1944년 6월6일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은 독일군 점령지인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15만 6000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쳤다.

노르망디 상륙 후 연합군은 프랑스 지역을 탈환하기 시작해 그해 8월25일 파리 입성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 행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차량 행렬이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도로에 모여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성추문 일막을 뚫' 의혹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휴전이나 정권 유지냐...네타냐후 선택은?

미, 휴전안 수용 압박 속 국내 반발도...수용 쉽지 않을 듯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지지구 전쟁의 휴전 여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보수주의자로서 오랫동안 개인적, 정치적, 국가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해 온 네타냐후 총리가 극명한 선택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선택지는 극우 정파와 함께 꾸린 강경 매파 정권을 유지하느냐, 자신과 이스라엘이 갈수록 심화하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역류 중인 인질들을 데려오느냐로 나뉜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고안한 새로운 휴전안 내용을 공개하자 어느 때보다 정치적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휴전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안 수용 압박이 만만치 않다.

새로운 휴전안 내용이 전해진 뒤 1일에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12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휴전안 수용 및 네타냐후 정권 퇴진을 외쳤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역시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는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이 없고 상징적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국민적으로 합의된 여론을 반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연정 내부에서는 휴전안에 대한 강한 비토도 나온다.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브리 국가안보장관과 베잘펠트 스포트리히 재무장관은 하마스를 제거하지 않고서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체결하면 연정을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입지 유지를 위해 휴전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몰디브 "이스라엘 관광객 입국 금지"

팔레스타인 지원 방안도 마련

이슬람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몰디브 대통령은 보도자료를 내고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이날 내각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각에 소위

원회를 만들어 관련 시안을 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몰디브는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무이주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살피기 위해 특사를 임명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몰디브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